

격려사

먼저 한마음선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하나이기를 발원하는 대원력으로 준비하신 한마음음악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축제와 같이 우리 사회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것은, 물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면서 정신적인 발전은 소홀히 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편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풍요 속에서도 많은 생명이 소외되고 경시되는 풍토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는 남을 위해 남은 나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살리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공생(共生)의 깨달음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종단은 공생실천을 위해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의 5대 분야에 걸쳐 자성과 쇄신 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1 한마음음악제’는 종단이 추진하는 결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찾는 길의 노래’인 선법가는 부르는 것으로 모든 생명이 나와 둘 아닌 도리를 깨닫게 합니다. 마음으로 노래하는 한마음선법합창단의 공연은 우리 불교음악의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마음음악제는 종교의 벽을 넘어서서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밝은 내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희망을 꿈꾸는 도반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음음악제로 대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주지스님 혜원스님, 한마음선법합창단과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신 출연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마음의 법음이 온 법계에 널리 퍼져 일체중생의 마음을 밝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불기2555년 11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